

## 47, 속담이야기

이름	부명	조부	증조부	세	파	직계보기	묘지도	구족보보기	신족보보기	상세보기	가로계보도	교정보보기	4대조상	직계행적
자녀	文綱 문경	伯全 백전	瑯 연	6										
金自光 김자광	尙夏 상하	翊 익	長源 장원	19	직장공파									
順子 순자	興書 흥서	然車 연탁	文紘 문현	26	직장공파									
明子 명자	宗書 종서	然泰 연태	義紘 희현	26	직장공파									
子文 자문	德書 덕서	然友 연우	浩紘 호현	26	직장공파									
玉子 옥자	俊書 준서	然雨 연우	鶴紘 학현	26	직장공파									
貞子 정자	俊書 준서	然雨 연우	鶴紘 학현	26	직장공파									

1 2 3 4 5 6 7 8 9 10 다음페이지

검색에서 '참고자료' 클릭

## 자료실

- 명가의 가훈
- 24절기
- 625환전국
- 부모
- 촌수
- 띠이야기
- 간지
- 지방쓰는 방법
- 관청상식
- 관직상식
- 공신
- 고사성어
- 지명별성씨
- 호칭 및 관계
- 본관별 인구
- 성씨별 인구
- **속담이야기**
- 제사상식
- 역대왕조표
- 역사이야기
- 결혼기념일
- 나이와 호칭
- 호칭 및 관계
- 오행상식
- 연호

[관직해설](#)

[관청해설](#)

[역사위인](#)

[구지명해설](#)

[연대표해설](#)

### ● 명가의 가훈

#### 가훈(家訓)이란

가훈이란 한 집안 안에서 지켜지는 법도를 말한다. 가훈과 같은 말로 가계(家戒), 가규(家規), 가약(家約), 가법(家法)이란 말도 있다.

문중에서는 문규(門規, 혹은 宗規)가 있어서 종산(宗山), 제사담(祭祀담) 같은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가훈은 가정의 어른을 중심으로 하여 가정안의 우애를 돈독하게 하고, 재산을 지키고 입신양명(立身揚名)하여 조상을 빛낼 수 있는 행동의 강령을 규정하되 이심전심으로 지켜지는 것이지, 글씨로 써붙여 이렇게 지키라고 해서 지켜지는 것이 것도 아니다.

그래서 가훈이 무르익어 가풍이 되면 전통있는 윤리규범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전통사회의 핵은 이 가풍으로 이루어지고, 이것이 건전하면 사회에 있어서의 법질서나 윤리질서도 건전할 것이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의 논리가 바로 여기서 비롯된 것을 알 수 있다.

#### 가훈(家訓)의 유래

가훈이란 이름으로 세상에 전해지는 가장 오랜 것은 중국 복제 안지추의 안씨가훈부터이다.

당시 5호 16국의 소용들이 속에 살고 있던 그는 자기 집의 전통을 지키고 입신, 치가의 법을 가훈으로 자손들에게 가르쳤다.

그 내용은 실로 다양해서 서지, 교자, 형제, 후취, 치가, 문장, 명실, 섭무, 성사, 지족, 제병, 양생, 귀심, 서중, 음사, 잡예, 중제 등의 20편으로 나뉘어 구체적이고 주밀하다.

송나라에 오면 주자(朱子)와 그 문인의 손에 이루어진 "소학(小學)"이 있다. 소학은 성현의 가르침과 가정윤리, 도덕, 군자의 일행을 모은 것으로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를 그대로 실행하면 성인이 될 수 있겠으나 일반에게는 너무나 높은 규범이다. 아마 우리나라의 모든 가훈을 모아 놓는 다 해도 이 "소학"이 포용하고 있는 덕목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 가훈(家訓)과 시대상황

환경과 시대에 따라 가훈은 변해야 하고 항상 살아 있어야 한다.

신라 김유신의 부인은 당나라와 싸워서 패배하고 돌아온 자기 아들 원술을 만나주지 않았다.

임전무퇴(臨戰無退)의 화랑정신(花郎精神)을 가훈으로 삼은 김유신의 유지를 따른 것이다.

이 때는 우리나라에 무사도(武士道) 정신이 살아 있던 시대였다.

그런가 하면 고려 이후에는 과거를 통하여 문치주의(文治主義)의 선민으로 등장한 선비 집안에서 유교의 가르침에 따라 성현의 가르침을 자제들에게 심어 주는 것으로 일관되어 있었고, 입신양명(立身揚名)하여 조상의 이름을 빛내는 것을 효의 대의로 삼았던 때라서 사대부(士大夫)사회 1,000년의 전통속에 많은 가훈이 생성되었다.

이것들은 대개 문집에 기아, 기녀 증 편지 형식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우암 송시열의 <계서녀>는 가난한 집안으로 시집간 딸을 위하여 쓴 것이다.

참고자료에서 '속담이야기' 클릭

## 속담 이야기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 < 가 >

- **가게 기둥에 입춘**  
보통 입춘이라고 하면 좋은 일의 시작을 이야기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발전을 도모하는 뜻에서 가게 기둥에는 늘상 붙어 있다는 말로 항상 그대로 라는 의미 인듯.
- **가까운 길 마다하고 먼 길로 간다.**  
편하고 빠른 방법이 있는데도 구태여 어렵고 힘든 방법을 택한다는 뜻.
- **가까운 이웃 먼 친척보다 낫다.**  
이웃끼리 서로 친하게 지내면 먼 곳에 있는 일가보다도 더 친하다는 뜻.
- **가까운 집은 깎이고 먼데 절은 비친다.**  
좋은 사람이라도 늘 접촉하면 그 진가를 알지 못하고 그 반대로 멀리 있는 사람은 직접 잘 모르면서도 과대평가하기 쉽다는 뜻.
- **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한다.**  
가난한 사람의 구제는 끝이 없어 나라의 큰 힘으로도 어려우니, 일 개인의 힘으로는 더욱 힘들다는 말.
- **가난한 집 신주 굶는 듯하다.**  
가난한 집에서는 제사를 그때마다 지낼 수 없으니, 신주가 굶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신주는 창피하여 말도 못하니, 할 수 없이 말도 못하고 굶는다는 뜻.
- **가난한 집에 자식 많다.**  
가난한 집에는 먹을 것, 입을 것이 늘 걱정인데 거기다가 자식까지 많다고 하여 이르는 말.
- **가난한 집 제사 돌아오듯 한다.**  
제사도 지낼 형편이 안되는 가난한 집에, 제사가 자주 돌아오면 얼마나 걱정이 되겠는가? 힘들고 괴로운 일이 계속 닥치어 오는 것을 말한다.
- **가는 날이 장날**  
생각하지 않고 간 날이 마침 장날이었다는 말이니, 뜻밖의 일이 공교롭게 잘 들어맞을 때 하는 말.
- **가는 말에 채찍질한다.**  
잘 하는 일을 더 잘 하게끔 격려한다는 뜻.
-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남에게 말이나 행동을 좋게 하여야 자기에게도 좋은 반응이 돌아온다는 말.
- **가는 방망이 오는 홍두깨**  
세상 일이 내가 남에게 조금이라도 잘 못하면, 나에게는 더 큰 해가 돌아온다는 뜻.
- **가는 손님 뒷꼭지가 예쁘다.**  
자기 가족들도 먹기가 어려운 가난한 집에는, 빨리 떠나는 손님이 마음속으로 고맙다는 뜻.  
가는 그 가게 사귀면 되는 그 그 짝에 사귀면